

산(okadaic acid), 디노피시스톡신(dinophysistoxin), 펙테노톡신(pectenotoxin)으로 물에 녹지 않고, 메탄올, 에테르, 아세톤 등의 유기용매에 녹는다. 내열성으로 보통의 조리로 파괴되지 않는다.

사람에 대한 중독량은 12MU(복강 주입, 24시간 내에 치사 독력)이며 식품위생법에 조개류에는 0.16mg/kg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잠복기는 30분~10시간이지만 보통 4시간 후 중독증으로 가벼운 설사, 메스꺼움, 구토, 복통이 나타나며 3일 후 회복된다.

예방은 적조 발생 시기에 조개류의 채취 및 식용을 금지한다.

(3) 권패류 중독

가. 테트라민(tetramine) 중독

한류성 심해의 육식성 권패류인 명주매물고등, 조각매물고등, 보라골뱅이, 나팔고 등 등의 타액선에 축적된 테트라민의 섭취로 중독된다.

잠복기 약 30분 후에 현기증, 두통, 떨림, 눈 깜박임, 시각 이상, 두드러기 등이 나타나며, 2~3시간 후 회복된다.

예방은 원인 권패류의 사전 검사 및 섭취에 주의한다.

나. 수랑 중독

A. 바다 진흙세균인 코리네포균(*Coryneform group*)이 생산하는 수루가톡신(surugatoxin), 네오수루가톡신(neosurugatoxin), 프로수루가톡신(prosurugatoxin)을 육식성 권패 수랑(말고등)이 섭취해 중장선에 축적한다. 사람이 이를 섭취하면 1~24시간 후 두통, 시력 감퇴, 입술 마비, 언어 장애 등이 나타나고, 1주일 뒤에 회복된다.

B. 비브리오 균이 생성한 테트로도톡신을 섭취한 불가사리를 육식성 권패인 나팔고 등, 수염고등, 개소라(털타고등) 등이 먹어서 중장선에 축적한다. 독성은 복어독과 비슷하다.

(4) 시구아테라 중독

열대나 아열대 해역(카리브해, 인도양, 태평양 등)의 산호초 주변에 서식하는 독성 어류의 섭취로 발생한다. 독성분인 시구아톡신(ciguatoxin)은 지용성 합질소화합물로 콜린에스테르 가수분해효소(cholinesterase)의 효소기능 억제로 신경 마비 독작용을 나타낸다.

예방은 유독어류 채취 금지 및 감시 철저, 주의보 준수 등이 필요하다.

(5) 돛돔 중독

돛돔의 간장을 먹으면 중독되며 다랑어, 상어 등 큰 물고기 및 고래, 바다표범, 곰 등의 간장도 위험하다. 독성분은 양이 지나치게 많은 비타민 A로 돛돔 간장에는 150만IU/g 정도까지 들어 있다.

권패류

소라와 우렁이처럼 껍질이 둘둘 말린 조개류